

# 전시 계획서

제목 : 물(水)

기획 : 조광석(경기대학교미술학부교수, 조형예술학 박사)

섭외 : 손갑환

주최 : 사단법인 맑은 물 사랑 실천 협의회

후원 : 서울특별시,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 KBS

운영위원 :

김용익 (경원대 교수)

박동일 (추계예술대 교수)

배동환 (신라대 교수)

백시종 (맑은 물 물 사랑 실천 협의회 상임이사)

홍용선 (한국화 화가)

(가나다 순)

## 전시 기획의도

이 전시는 팔당호수 주변에서 작품제작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팔당호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팔당호**는 서울 시민의 쫓돌일 뿐 아니라 한강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주변환경이 수려하여 서울시민의 휴식처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많은 사람들의 이주와 개발을 통해 주변환경이 황폐해지고있으며 그로 인한 **수질오염, 환경오염**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전원에서의 삶을 동경하지만 지금과 같이 대단위 이주의 결과는 오히려 환경을 급격히 파괴하는 원인 제공을 하기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는 보장하되 서로간에 보존하고 지키면서 좀더 가치 있는 것으로 지향할 때가 된 것이다.

최근 정부의 정책은 주민자치에 기울고 있다. 이는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좀더 수준 높은 공공의식으로서 상대를 존중하는 자율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팔당주변의 환경문제도 같은 차원으로 접근해야하리라 믿는다. 그것은 강제적 선도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문화로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게된다.

환경보존이 문화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캠페인 이상의 문화활동을 시도하여야한다. 따라서 문화운동에서 가장 시각적이며 지속적인 행사인 미술전시를 통하여 예술과 환경운동의 접목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미술전시를 통해 작가들의 입장에서 환경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제시하고자하는 의도와 본래의 자연 상태에 대한 보존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고자 전시를 계획하게되었다.

작가 선정에 있어서 지역적으로는 팔당호수 주변이라고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활동 범위가 서울시에 있고 서울 시민 또한 팔당호의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서울시의 중심에서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환경
한강의 물과 이것의 이동 통로인 하천, 그리고 거기에 서식하는 수생태계는 하나 의 수환경(水環境)을 구성한 다.

예술
예술은 삶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 그것의 특별한 성과물 은 일상에 활용 한다.

전시
문화
예술과 학문은 자연을 통제 하기보다 도덕적 향상, 정의 의 인류를 만들 것이다.

## 전시개념

**한강:** 한강유역은 대체로 북북동에서 남남서로 향하고 있으며 대부분 저산성 구릉지에 속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북한강은 금강산에서 발원하여 강원도 화천군을 흐르며 강원도 설악산, 한계령 방면에서 인제를 거쳐 춘천으로 흐르는 소양강과 합류된다. 남한강은 강원도 정선, 영월, 단양을 거쳐 충주와 여주로 흐르며 북한강과 남한강이 경기도 양수리에서 합류되어 서울쪽으로 흘러 임진강과 합류하여 황해로 들어간다.

**환경:** 한강의 자연환경을 경제개발의 대상으로만 보고 이를 무한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현대 과학기술문명으로 한강유역 전체가 환경위기를 맞고 있다. 오늘의 문명은 생태계의 순환과 균형을 파괴시키어 지구차원의 환경위기는 물론 지역과 우리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이 가시화 되고 있다. 물의 양적·질적 문제는 사람의 생존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 구성요소간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물관리 개념은 수환경 관리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며 전반적 문화로 확산시켜야 한다.

**예술:** 예술은 과학, 도덕, 문화의 중요영역에서 삶의 체계로서 복구하려한다. 일상에서 환경의 의미, 도덕적 기대, 주관적 표현과 평가가 상호 연관되어 작품을 시도한다.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문화적 전통을 필요로 하며 환경의 위협에서 구출할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전시:** 중장년 작가들을 주축으로 주제별로 나누어 각각의 전시실에서 전시를 개최한다.

- 자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여 팔당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발과 보존된 아름다움을 재확인시키게 한다.

- 신기술에 대한 환희 내용물들의 함열, 의미의 흡수, 매체자체의 증발, 모델의 전적인 순환성 속에서 의사소통의 모든 변증법의 흡수, 대중 덩어리 속으로 사회적인 것의 함열 등 이러한 것의 확인은 대재난적이고 절망적일 수 있다.

새로운 매체에서 우리 산하의 미적 요소를 재발견하고자한다.

**문화:** 전문적인 예술가는 문화 상응해서 반응하는데, 제반문제는 예술가의 관심사에 따라 취급된다. 인식적 도구적 합리성, 도덕적 실천적 합리성, 미적 표현적 합리성 정통적인 예술가들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계몽주의의 문화적, 사회적 혁명을 담고 있다.

전 시 계 획		
<b>팔당의 산하</b>	<b>새로운 기술</b>	<b>도시와 환경</b>
물과 생명, 자연 경관을 묘사하는 작품 - 20명	새로운 환경의 다양성을 제시하는 작가 -20명	폐기와 폐허의 실상을 보여주는 작품 -20명

참여작가명단 : 예정

경비 조달 방법

후원 : 한강유역관리청  
한강관리공단  
LG. 삼성전자. 장비지원

전시 희망 기간 : 2001년 3월 27일 - 4월 20일

전시 준비 기간 : 전시 개막일 3일전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